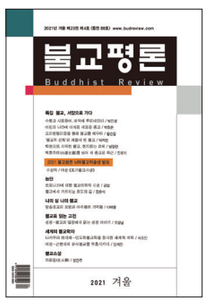
“서구 ‘불교 붐’, 물거품에 불과하다”

박치완 한국외대 교수 〈불교평론〉 특집서 지적




명상하는 서구 어린이들. 서구 · 유럽의 불교 붐이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프랑스 불교 현황 · 전망 짚어
신비주의 · 기독교 프리즘으로
불교 탐구…기독교화 우려도

‘세속화되며 세계화’ 경계해야
禪보다 바른 교리 전달 필요해

‘현재 유럽, 미국인들은 동양의 종교인 불교에 열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핑크빛 상황만 펼쳐지고 있을까. 혹시 서구인들의 기독교적 시선을 통해 불교는 “기독교적 불교”로 재편되지 않을까. 서구 · 세속화된 불교를 ‘세계화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불교 붐은 “부말(浮沫,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치완 한국외대 교수는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 ‘불교, 서양으로 가다’에 게재한 ‘불교적 신학의 제물이 된 불교’에서 프랑스의 불교 붐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프랑스 브르고뉴대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박 교수는 앞서 ‘프랑스에 불고 있는 정체불명의 불교 붐’ 등의 글을 통해 프랑스와 서구의 불교 붐을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논문에서도 박 교수는 “서구나 프랑스에 불교가 갖는 고차의 지식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불교는 철저히 세속화된 불교로 전락하거나 기독교화의 제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신비주의, 무신론, 우상숭배와 같은 불교에 대한 서구 · 유럽인들의 편견은 이미 역사적 사실이나 진실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기독교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불교의 역사적 기원은

박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에 ‘불교(Bouddhisme)’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20년이다. 당시 불교는 이국적 종교에 대한 인식이었지만, 19세기 말에는 무신론 · 염세주의 · 이기주의 등의 꼬리표가 붙어 유럽 지성계에 유포됐다. 프랑스에 불교가 프랑스어로 쓰인 한 권의 저서로 소개된 것은 1844년 E.뵈르누프의 〈인도불교 역사 입문〉이 처음이다. 앞서 쇼펜하우어의 〈동양의 르네상스〉(1818)가 있었고, E.아놀드의 〈아시아의 등불〉(1879)과 C.H.S.올코트의 〈불교교리선〉(1881) 등도 일익을 담당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에서는 1929년 ‘불교의 벗들’이라는 단체가 조직되면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뤄진다. 이처럼 20세기에 접어들며 불교는 서구 산업사회를 치유할 ‘대안 종교’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는 칼 구스타프 융이 서문을 붙인 스즈키 선사의 〈선불교입문〉이다. 1959년 출간된 이 책은 서구에 불교를 알렸지만, 선불교를 ‘신비적이고 불가사의한 것’이라는 오해의 단초를 제공했다. 20세기 중후반에 접어들면 불교는 명상, 요가 등으로 치환돼 ‘세계적 불교’로 위상을 갖추게 된다.

박 교수는 이 과정을 ‘불교의 현지화’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본질에서 벗어나 세속화된 상태를 ‘서구 · 유럽에서 불교의 현대적 발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다.

그는 “이국의 땅에서 임의로 재구성된 불교는 기독교적 프리즘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불교적 신학’이나 ‘개신교적 불교’라는 표현도 주저없이 사용할 정도로 불교는 서구 · 유럽에서 감초처럼 소환돼 기상천외하게 ‘요리’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서구 전법사도 “불교 부재” 오도

박 교수는 논문에서 루뱅대 신학부 교수 O.리오델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불교 · 비교종교학자 D.지라, 서구 대표 전법사 롬블뤼에르의 불교관을 통해 서구인들이 기독교적 프리즘으로 불교를 재단하는지를 살폈다.

리오델의 경우 ‘절대적인 것에 형용불가능성과 유한세계의 진리’라는 논문에서 불교철학의 아킬레스건으로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해법을 칸트, 헤겔 등에서 찾으며 불교를 유한세계에 머무는 종교로 예증한다. 지라는 ‘환생, 윤회, 육신의 부활’에서 환생과 연기의 메타적 결합을 강조하며 ‘하나님(신)의 사랑’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소토교단에서 비구계를 받고 ‘자운’이라는 법명을 가진 전법사 롬블뤼에르는 ‘불교 부재론’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불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닌 이질적이고 새로운 문화”라고 단정하며 “불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파한다.

박 교수는 “리오델, 지라, 롬블뤼에르를 통해서 불교는 여전히 기독교 문화의 우산 아래 있다”고 지적하며 “프랑스인들에게 ‘불교 붐’은 신비적 · 불가사의한 · 비논리적인 것에서 ‘서구 · 유럽 안에 있는 동양의 발견’으로 재구성돼 더 없는 호시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명상, 요가,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이 불교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불교가 서구 · 유럽인들의 삶 속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다. 불교는 세속화되면서 오히려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 불교 전파 노력해야

박 교수는 서구 · 유럽 사회에 불교 교리를 올바르게 전해야 현재와 같은 참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한국불교계가 서구 · 유럽 불교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서구 · 유럽인들을 위해 한국불교계는 선이나 명상 수행만을 중시하기보다 교학을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구 · 유럽인들과도 상호종교적 · 비교종교학적 교류를 꾀해야만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 ‘불교, 서양으로 가다’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등의 불교 전래 역사와 신도 수 현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담은 논문들이 수록됐다.

논단에서는 수의사 출신 수행자인 공일 스님이 ‘코로나19에 대한 불교의학적 시선’을 통해 전염성 질병에 대한 불교의학적 관점을 소개했다. 또한 대표적인 불자 소설가인 정찬주 씨가 신작 단편소설 〈자화장(自火葬)〉을 선보였다.

불교평론 편집위원장 이혜숙 박사

11월 30일 밝혀… 첫 여성 편집위원장



계간 〈불교평론〉 신임 편집위원장으로 이혜숙 박사〈사진〉가 선임됐다.

〈불교평론〉은 “2022년부터 편집위원회를 이끌 새 편집위원장으로 이혜숙 박사를 선임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혜숙 박사는 〈불교평론〉 최초 여성 편집위원장이다.

신임 이혜숙 편집위원장은 경기여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동안 동국대와 금강대 등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해온 불교학자다.

이 위원장은 대학 강의 외에도 그동안 여성 노숙자 자활시설 화엄동산 소장, 종교사회복지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제교류위원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온 활동가다. 신성민 기자

제2회 불교상담학술상에 문일수 교수

불교상담학회, 11월 28일 시상식 개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11월 28일 경주 현곡 지엄선실에서 제2회 불교상담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 문일수 동국대 의대 교수가 불교상담학술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서병찬 휴&메디 치유연구소 대표와 이충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게는 상장과 함께 200만 원의 상금, 장려상에게는 상장과 함께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전달됐다. 올해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선정되지 못했다.

문일수 동국대 의과대 교수는 ‘싸띠 수행의 뇌과학’을 서병찬 대표는 ‘불교와 숲 치유’, 이충현 박사는 ‘인공지능 시대의 심리치료’를 주제로 연구했다.

‘싸띠 수행의 뇌과학’ 연구는 불교명상을 뇌과학과 접목해 구체적인 뇌 변화를 기술하고 선도적인 연구방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일수 교수는 캐나다 프레더릭턴(Fredericton) UNB 박사이며 1994년부터 동국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뇌신경세포와 뇌질환을 연구 중이다.


한국불교상담학회는 11월 28일 제2회 불교상담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병찬 대표의 ‘불교와 숲 치유’ 연구는 숲 치유 프로그램과 불교 수행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현대인들을 위한 심신 치유 효과를 정리했다. 이충현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의 심리치료 핵심 역량으로서의 마음챙김’ 연구는 인공지능의 장단점과 한계성을 마음챙김 수행과 연결해 고찰했다. 하성미 기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특별전형 모집

12월 20일~29일 인터넷 접수
석 · 박사 등 정규 학위 취득

불교 경영 ·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내년도 1학기 특별전형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불영 자광)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특별전형으로 2022년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일반대학원 정규과정인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불교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참여하는 협동과정으로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런 만큼 참여하는 교수진들도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불교학과에서는 김종욱(불교철학) · 신성현(계율학) · 허남결(불교응용윤리학) · 이자랑(불교교단사) · 조기룡(종무행정과 사찰경영) 교수가 참여하며 경영학과는 김승용(조직행위) · 정구혁(인적자원관리)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는 김관규(방송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 김용환(디지털/소셜미디어)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